



가톨릭 안동

교구 50 주년 다짐 실천의 해
“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제80호 2020년 7월 12일(가해) 연중 제15주일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김만용 프란치스코 작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백 배, 어떤 사람은 예순 배, 어떤 사람은 서른 배를 낸다.”
(마태오 13,23)

제1독서 이사야서 55,10-11

화답송 ◎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었네.

손상오 신부 곡



제2독서 로마서 8,18-23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

복음 마태오 13,1-23

영성체송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내 맘은 작은 꽃밭

영주 휴천동 본당 보좌
우석민 로만 신부



찬미 예수님. 그동안 듣고 보아온 성경 말씀을 하면 우리는 몇 번이나 성경을 통독했을까요? 또, 그동안 본당 신부님 강론, 평화방송 라디오, TV, 여러 신부님의 강론 테이프, CD, 성경을 풀이해준 책들을 듣고 보면서 우리는 얼마만큼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고 실천했을까요?

우선, 다행인 것은 우리는 군중들처럼 비유 말씀만 들은 것이 아닌 제자들처럼 비유 풀이 말씀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더욱 새겨들어야겠습니다.

오늘 복음 환호송에 나온 것과 같이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이며,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씨가 뿌려지는 곳은 어디 일까요? 어린이 성가 중에서 ‘내 맘은 작은 꽃밭’이라는 노래 제목처럼 우리 각자의 마음, 작은 꽃밭에 씨가 뿌려집니다.

하지만 이 작은 꽃밭은 처음부터 꽃들이 활짝 핀 꽃밭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각종 잡초와 돌들이 가득한, 오늘 복음에 비유하자면 길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 길과 같은 곳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좋은 강론을 듣는다 하더라도 말씀의 씨앗은 자라지 못합니다.

쓰레기가 쌓이고 옷들이 널부러진 방을 치우듯, 우리는 잡초를 뽑고, 돌을 치우고, 밭을 갈아엎고, 물도 주고, 영양제도 줘야겠죠.

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잡초를 뽑고 돌을 치우고, 밭을 갈아엎는 일은 계속해서 말씀을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도 말씀의 씨앗은 계속 우리 마음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길 같던 곳이 그나마 밭처럼 느껴질 때 돌밭에 뿌려진 씨처럼 말씀을 들으면 기쁘기는 하지만 오래가지 못하기도 합니다. 돌을 치우고 나면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처럼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기도 합니다.

기름진 땅, 좋은 땅이 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제 동기 중 한명이 피부가 참 좋길래 어떻게 하면 탱글탱글한 피부가 될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해서 물을 많이 마셨는데 저는 그런 피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아니, 물을 많이 마셨는데도 피부가 별로 좋아지지 않는다.” 그랬더니 동기가 말하길 “빠짝 마른 땅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처음에는 물이 그냥 흘러 내려갈 뿐이다. 계속해서 물을 줘야 언젠가 땅이 물을 흡수하고 촉촉해지지.” 끊임없이 돌을 치우고, 가시덤불도 치우고, 물도 줘야지 만이 우리의 밭은 좋은 씨앗이 자랄 수 있는 밭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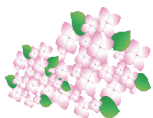
지금의 나의 이 고난과 진통이 언젠가 내 마음, 좋은 밭에 말씀의 씨앗이 활짝 꽃피는 모습으로 보상받을 것이라는 희망을 간직하며 좋은 밭 만들기라는 나의 사명을 완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 줄

.....

묵상한 줄

.....



.....

(오늘의 말씀 중 마음에 와 닿는 구절과 짧은 묵상을 적어봅니다.)



아브라함 7

창세기 18장에서 세 사람이 마므레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는데, 러시아 수도자 안드레이 루블레프는 이콘에서 이들을 삼위일체 하느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랍비들은 이들의 정체는 미카엘, 라파엘, 가브리엘 천사이며, 미카엘은 사라의 임신을 알리고 롯을 살리며, 라파엘은 할례의 고통을 겪는 아브라함을 치유하고, 가브리엘은 소돔과 고모라를 파괴하는 임무를 맡아 파견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대접하는데, 이 장면은 고대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손님 맞이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주인은 손님에게 먼저 물 한잔과 약간의 음식을 대접했는데, 아브라함은 많은 양의 고운 밀가루로 구운 빵과 좋은 송아지 한 마리의 고기를 대접합니다. 이것은 고대에 계약을 맺은 두 당사자가 계약 후에 함께 나누던 만찬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은 하느님과 아브라함의 계약이 성사되었음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계약의 첫 번째 결과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서 아들을 얻을 것을 알려주는데, 사라는 이 소식을 듣고 웃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이 웃는다는 뜻의 이사악이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노부부가 아이를 낳으리라는 말은 망측스러운 뿐이겠죠.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처녀가 아이를 낳으리라는 말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청하는 기도를 바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에서 세 사람을 만난 뒤에 그와 하느님의 친밀한 관계를 잘 보여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느님께서 조카 롯이 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 하시자, 그 도시들을 위해 중재 기도를 한 것입니다. 중재 기도

는 일반적으로 세 번 반복하였는데, 아브라함은 세 번씩 두 번 반복하면서 더 절실하게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은 마치 의인의 값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사려고 거래하는 듯합니다. 아브라함은 더 낮은 가격에 구매하려고 50명의 의인에서 10명까지 여러 번 값을 깎는데, 하느님은 이 거래를 마지막까지 받아 주십니다. ‘천원만’, ‘오백 원만’ 하면서 깎아달라고 떼를 쓰는 단골손님과 ‘그러면 밀지는데’ 하면서도 결국 깎아주고 마는 상인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보는 듯합니다. 그리고 의인 단 열 명이 소돔과 고모라 두 도시 전체와 거래된 사실은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의인 한 명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도 알려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브라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고 맙니다.

(함원식 이사야 신부/ 안계 본당 주임)



「삼위일체」, 15세기, 안드레이 루블레프 작

신앙의 두레박

‘교구(敎區)’란 무엇인가요?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가톨릭교회 안에 교회의 기본 단위를 이루는 지역교회를 ‘교구’라고 부릅니다. 보통 주교좌 성당과 주교가 거주하는 지역의 명칭을 따서 교구의 명칭을 따웁니다. 교구는 “교구장 주교가 사제단의 협력을 받아 사목하는 하느님 백성의 한 부분”이라는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복음 선교 시초에 사도들이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에 봉사자들을 세워 하느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했던 것이 이러한 교구들의 기원입니다. 우리 안동교구는 196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김요한 사도 요한 신부/ 춘양 본당 주임)





쌀 한 자루

정송자 모니카 · 안동가톨릭문인회

오늘도 쌀을 씻는다. 일상 속에서 하는 일이지만 밥을 지어 먹는 것은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과 함께 퍼지는 고소한 밥 냄새를 맡으며 잠시 옛일을 떠올려 본다.

내 나이가 22살쯤 때이다. 혼자되신 아버지는 한 전 수금사원으로 퇴직을 하였고 나는 근처 광업소 사무실에 경리로 취직해 있었다. 언니는 객지에 나가 있었고 오빠는 군복무 중이고 남동생은 고등학생이었다. 많지 않은 내 월급으로 살림을 하며 지내니 늘 쪼들렸다. 어깨라도 기댔을 엄마가 있다면 좋았을 텐데. 그 당시에 나는 성당을 열심히 다녔다. 미사를 드리고 신자들과 활동을 하는 것이 마음 편했다. 봉사활동으로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토요일이면 초등학생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었다. 여름 산간학교가 있을 때에는 아이들과 함께 야외에 나가 텐트를 치고 노래와 게임을 하면서 일박이 일을 지냈다.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면 적극적으로 참석을 하며 수녀님을 도와 드렸다.

다니던 사무실에서 경제적으로 힘들다며 당분간 월급을 줄 수 없다고 했다. 월급을 받지 못하고 집에 돈도 얼마 없으니 밥을 해서 먹을 수가 없었다. 쌀이 없을 때는 밀가루를 가지고 수제비를 만들어 아버지께 드렸다. 칼국수를 삶아 먹고 어묵을 먹기도 했다. 밥그릇에 고봉으로 가득 담은 밥을 먹어본지 꽤 오래되었다. 사실 아버지가 돈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남동생 고등학교, 대학교 보낼 돈이라면서 쓰지를 앓으셨다.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 딸은 동분서주 하는데 아버지는 모른 척 하고 있으니

서운하고 미운 마음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당 청년회 모임 중에 내가 힘없이 쓰러지는 일이 있었다. 누웠다가 눈을 뜨니 수녀님이 걱정스런 얼굴로 나를 내려다보며 이마를 쓰다듬어 주었다. 친구가 내 어려운 집안 얘기를 수녀님께 말을 한 것이었다. 아마도 배가 고파 현기증이 나서 쓰러진 것 같으면서, 부끄럽고 창피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가고 성당에 큰 행사가 있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새벽에 보니 대문 안쪽으로 쌀 이십 킬로 한 자루가 있는 것이 아닌가. ‘누가 여기에다 쌀을 두고 갔을까.’ 살펴보니 메모지가 있었다.

사랑하는 모니카,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하는데 현실이 힘들더라도 절대로 기죽지 말고 잘 견디면서 지내요. 앞으로 화사한 꽃밭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김 수녀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흘러내렸다. 수녀님이 보내 주신 쌀로 밥을 해서 맛있게 먹는데 나는 자꾸 목이 메어와 물을 연거푸 마셔야 했다.

그때 성당에 같이 다녔던 청년 회원들도 보고 싶고 김 수녀님도 너무 보고 싶다. 모두 어디에선가 건강하게 지내고 있으리라 믿는다. 쌀을 사서 먹을 때마다 떠오르는 그 옛날의 쌀 한 자루. 베푸는 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는 큰 힘과 용기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가족들이 먹은 밥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한다. 쌀 한 톨의 고마움을 절실히 느낀다.

분도여행사
www.bundotour.com

정성을 다하는 성지순례

유럽 성모 발현지 순례

10월 15일 ~ 10월 27일 (13일)
390만원 (공동경비 포함)

☎ 02-852-8525

안동신협

가톨릭과 함께 하는 서민은행

대출(신용·담보), 예금(비과세), 공제

안동시 태사2길 48(안동의료원 앞)

☎ 054-859-1710

문경새재 임팩정가든

40년 전통 손두부전문, 능이버섯 한우두부전문

홍창식 안젤로 · 박순분 안젤라

문경읍 새재로 870번지

☎ 054-571-2285, 054-572-0027

STEAK SOPHIA
스테이크 소피아

안동 최대 패밀리 레스토랑

스테이크, 스파게티, 피자

안동 홈플러스 3층 (구) 율리에 자리

박금복 소피아

☎ 054-859-9997

핸즈커피 월영교점

맛있는 커피와 수제 디저트로

고객과 함께 합니다.(15일 이내 원두사용)

조태상 바르사

안동 1번지 월영교 앞 ☎ 054-858-3476

서울 프라임 치과

임플란트·교정·보철치료·치주질환

원장 김재권 미카엘

옥동사거리

☎ 054-859-2879

우리농 목성동 직매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며

모두를 살리는 생명농산물 직매장입니다.

목성동 성당 입구 (가톨릭센터 뒤)

☎ 054-856-0127



가시

네 안에 말씀이 싹튼 줄로 안다,
그러나, 세속 온갖 욕망의 가시덤쿨로
뒤덮혔잖아,

참으로 답답하네,
견어 치우고, 잘라버려야지,
말씀이 자랄 수 있도록.....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대,
(마태 13,7)

글 · 그림 김시숙 에스텔

PUZZLE

1		2	2	
1				3
			3	

#가로

1. 구약 성경 중 하나로 모세오경의 3번째 책. 율법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2.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머리에 베었던 돌을 가져다 기념 기둥으로 세우고 그 000에 기름을 부었다. (창세 28, 18)
3. 1985년 문경지구 사목협의회에서 박상근 마티아의 묘를 이장 한 곳. (가톨릭안동 제19호 5월 19일자 참조)

#세로

1. 1982년 두봉주교가 서울 프랑스 대사관에서 받은 프랑스 정부의 최고 훈장
2.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예수 성탄 대축일 전 4주간의 시기
3. 1979년 불량 감자 씨로 인해 감자 농사를 망치게 되어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생긴 사건 (안동교구 가톨릭 농민회 사건이라고도 불린다.)

				돌
웅			마	하
	하	나		고
웨			하	3
하			하	
가		하	하	나

안동제일안과
백내장, 녹내장, 망막, 안성형, 드림렌즈
원장 정재업 토마 / 원장 서의태 임마누엘
안동시 대안로 107 신시장 태평약국 2층
☎ 054-855-7582~3

가인 재가 복지 센터
어르신들 낮 동안 보살펴 드립니다.
♥ 주간보호 ♥
손순이 세라피나
상주시 무양 1길 46
☎ 054-535-8090

건강재활교정원
허리·목 통증, 거북목·골반 교정
통증·성장 관리, 자세·체형 교정
★ 신부님 · 수녀님 관리비 50% 할인 혜택 ★
이택협(조가리아) · 천천영(엘리사벳)
경북 예천군 예천읍 효자로 60
☎ 054-654-8175

주보 광고 모집

1. 주보광고 모집 안내
[교구 내] 1회 3만원,
[타 교구] 1회 5만원
2. 단체 알림 광고 모집 안내
[교구 내] 4줄 무료(제목 포함),
[타 교구] 1줄당 5천원(제목 포함)
3. 문의: 안동교구청 사목국
054-858-3114~5

바오로딸 서원
안동시 서동문로 147
목성동 성당 입구
인터넷 서점: <http://www.pauline.or.kr>
☎ 054-859-6040

천주교 안동교구 봉안 경당
미사: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분양문의: 054-655-1781
세부내용: 안동봉안경당.com

『조선 선교에 바친 삶』
북자 박상근 마티아가 만난 갈레 강신부의 전기
가격 13,000원
문의 858-3111 ~3(안동교구청)



교구장 동정



7월 19일 농민주일 미사

축하합니다

서품축일 7월 17일 정희완, 임준기, 신동철 신부

기억합니다

7월 13일 배세영 신부 10주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2019. 12. 1 ~ 2020. 11. 28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들을 잘 지킵시다.

교 구

■ 유튜브를 통한 <열린성경강좌>

- 주제: 창세기 - 바벨탑 사건의 의미/ 떠나라! 아브라함
- 강사: 함원식 이사야 신부(안계 본당 주임)
- 동영상 게시 일시: 7.13(월) 19:30
- 채널: 유튜브에서 “천주교 안동교구” 검색

■ 농민주일 미사

- 일시: 7.19(주일) 10:30
- 주례: 권혁주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
- 장소: 농은수련원

※ 농민주일(7월 19일)에는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어린이 미사 ▶ 유튜브 방송 안내

본당 미사에 참여하기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해 교구 신부님들의 도움으로 일시적으로 어린이 미사를 유튜브로 방송합니다. 어린이들이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교사들과 부모님들도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업로드 일시: 토요일 15:00
- 유튜브 채널: 천주교 안동교구 Diocese of AnDong

■ 전산·회계 담당 직원 채용공고

- 지원자격: 가톨릭 신자(여성), 전산·회계 기능자,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구비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및 세례증명서
- 문의: 교구청 사목국 054-858-3114
- 면접: 서류전형 후 개별 통보

■ 예비신학생 7월 모임

- 일시: 7.19(주일)

※ 야외 행사로 진행.

■ 주일학교 수녀모임

- 주제: “코로나19 시대, 우리 주일 학교”
- 일시: 7.20(월) 15:00 ~ 21(화) 14:00
- 장소: 농은수련원

■ 성체 분배 직무 수여 미사

- 일시: 7.25(토) 10:30 ~ 13:00
- 장소: 교구청

제 단 체

■ 제90차 안동ME주말

- 일시: 8.14(금) 19:00 ~ 16(일) 17:00(2박 3일)
- 장소: 농은수련원 • 신청마감: 8. 9까지
- 자격: 혼인한지 5년 이상 된 부부 (짝교우, 비신자, 타종교인, 사제, 수도자 가능)
- 신청: 김좌중(M.콜베)010-6580-8408, 천연화(베로니카)010-6500-8408

기 타

■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성소모임

- 대상: 보건 및 복지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
- 일시: 7.18(토) 14:00
- 문의: 010-3800-1579, vocationoh@daum.net
- 장소: 서울 개화동 수도원

■ 한국순교복자빨마수녀회 성소모임

- 일시: 수시로 가능
- 장소: 부산 오륜대 본원
- 문의: 010-6222-7371

■ 한국외방선교회 성소모임

- 대상: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 문의: 김낙윤 신부 010-8715-2846 kmsvocation@daum.net

■ 양업고등학교 가톨릭 좋은학교 연수

- 일시: 8. 1(토) ~ 2(일) 1박 2일
- 대상: Quality School에 관심있는 학부모, 교사, 일반인
- 접수: 학교 홈페이지(7.20부터 선착순, 043-260-5076)
- 2021학년도 입학전형 안내도 겸함.

■ 한국평협 가정 선교 체험 공모전

- 대상: 관심 있는 모든 신자
- 주제: 가족 간 선교를 통해 하느님 사랑을 체험한 수기
- 형식: A4 10포인트 2~3장(200자 원고지 기준 20~30매)
- 접수: 8.31 ~ 9.29, 메일 또는 우편 접수
- 문의: 02-777-2013 (시상 및 자세한 공모 내용은 www.clak.or.kr 또는 모바일앱 [한국평협] 참조)